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2023 KBO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10개 구단 대표 선수와 감독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스시

# 김종국 감독 “가장 높은 곳 향해 출발하겠다”

2023 프로야구 미디어데이  
김도영 “우승 공약은 세차”

내일 SSG와 원정 개막전  
선발 손앤더슨 vs 김광현  
신인 윤영철·곽도규 엔트리

KIA 타이거즈 김종국 감독과 선수들이 2023시즌 우승을 다짐했다.

김종국 감독은 3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쏘 KBO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출사표를 던졌다.

김 감독은 이날 “지난해 가을부터 스프링캠프까지 열심히 준비했다. 우리 선수들이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준비를 잘 했다”며 “팬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알고 있다.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출발하겠다”고 우승 각오를 밝혔다.

KIA 대표선수로 참석한 김도영은 우승 공약으로 ‘세차’를 내걸었다. 김도영은 “우승을 한다면 기자자동차를 타고 계시는 팬들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선수단이 직접 세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종국 감독은 “좋은 성적을 거둬 팬들 앞에서 가수 김종국의 ‘한 남자’를 부르겠다”고 공약했다.

광주입고 출신인 김종국 감독은 동문 선배인 이강철 KT 감독과 염경엽 LG 감독을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치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김 감독은 “지난해 LG, KT를 상대로 열세였는데 올해는 반대로 열세를 극복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KIA는 지난시즌 LG와 6승 10패, KT 상대로는 5승 1무 10패로 약했다.

김 감독은 4월1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리는 SSG 랜더스와의 정규시즌 개막전 선발투수로 새 외국인 투수 손 앤

더슨을 지목했다.

김 감독은 “앤더슨이 현재 컨디션이 가장 좋고 구위, 제구력 등에서 5명의 선발 투수 중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였다”며 “개막전을 이길 수 있는 필승카드로 앤더슨을 낙점했다”고 설명했다.

앤더슨은 지난해 11월 말 계약금 10만 달러, 연봉 60만 달러, 옵션 30만 달러 등 총액 100만 달러에 계약을 맺고 KIA 유니폼을 입었다.

193cm의 큰 키에서 내려 쫓는 최고 시속 154km의 빠른 공이 위력적이고 슬라이더와 투심 패스트볼, 커브, 체인지업 등도 섞여 던지면서 빠른 투구 템포와 강력한 구위로 이닝 소화 능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으며 영입됐다.

앤더슨은 첫 실전 등판인 지난 1일 일본 오키나와현 온나손 아카마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연습경기에서 위력투를 선보이며 1선발로 기대감을 키웠다.

이날 2이닝 동안 19개의 공을 던져 무피안타 무사사구 3탈삼진 무실점의 ‘퍼펙트’ 투구를 펼쳤다.

시범경기에서도 3차례 선발 등판해 15이닝을 소화하며 10피안타 7사사구 12탈삼진 4실점(2자책점), 평균자책점 1.20의 호투를 펼쳤고, KBO 데뷔전을 개막전 선발로 치르게 됐다.

개막전 상대인 SSG는 김광현을 선발로 발표했다. 김광현이 개막전 선발로 나선 것은 메이저리그 진출 직전인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김광현은 2020년과 2021년 미국 메이저리그(MLB)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활약한 뒤 지난해 KBO 리그에 복귀해 13승 3패 평균자책점 2.13으로 에이스 역할을 하며 팀의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이끌었다.

KIA 신인 투수 윤영철과 곽도규는 올 시즌 개막엔트리에 이름을 올린다.

윤영철은 시범경기 2차례 등판해 8.2이닝 4피안타 4볼넷 9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곽도규도 5경기 모두 불펜으로 나서 4이닝 1피안타 3볼넷 2탈삼진 무실점 투구를 펼쳤다.

김종국 감독은 “신인투수 윤영철은 5선발로 확정됐다. 스프링캠프부터 시범경기까지의 퍼포먼스가 5선발 자격이 된다. 곽도규도 개막 엔트리에 진입한다. 두 젊은 투수들에게 응원 바란다”고 말했다.

10개 구단 감독들은 LG와 KT를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았다. 김종국 KIA 감독, 김원형 SSG 감독, 홍원기 키움 감독, 박진만 삼성 감독, 이승엽 두산 감독 등 5명이 “두 팀의 투타 전력이 가장 안정적”이라며 선택했다.

강인권 NC 감독은 KIA와 키움을 우승 후보로 지목했다. 강 감독은 “두 팀이 튼튼한 전력 갖고 있고 중상위권 전력 평준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최동환 기자

## KIA, 내달 7~9일 홈 개막 시리즈 이벤트 풍성

개막전 시구자 83년 당시 어린이 입장객에 車 셀토스 경품 추첨도



KIA 타이거즈가 오는 4월 7~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2023시즌 오프닝 시리즈를 맞아 ‘TIGERS HERITAGE ; 저력을 믿고, 전력을 다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한다.

KIA는 1983년 ‘VI’ 40주년을 맞아 선수단과 팬에게 명가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올시즌 우승에 대한 동기부여를 한다는 취지로 홈 개막시리즈 주제를 잡았다.

오프닝 시리즈의 시구는 첫 우승 40주년을 기념하며 ‘타이거즈 헤리티지 팬’ 시구로 꾸러진다.

개막전 7일 시구는 1983년 타이거즈 어

린이 회원 가입자인 김영대 씨가 한다. 시타는 올해 어린이회원인 박건후(8·광주)군이 한다.

이날 애국가가는 팝페라 그룹 ‘레디스’의 리더 김아람 소프라노가 부르고, 경기 전에는 ‘스트리트걸스파이터’에서 활약했던 광주지역 댄스팀 ‘미스몰리’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8일 경기는 지난해 ‘KBO 디지털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3대째 타이거즈 팬인

심재화 씨 가족이 시구와 시타를 맡는다. 애국가가는 테너 박현 씨가 부르며, 경기 전에는 비보잉 그룹 ‘진조크루’가 그라운드 군무를 선보인다.

9일 경기는 1983년 타이거즈 어린이 회원인 노병국 씨가 시구한다.

노병국 씨는 1982~1985년까지 4년 간 어린이 회원에 가입한 열혈 타이거즈 팬이다.

경기 전 팬 사인회 행사도 진행된다. 7일 최형우, 양현종을 시작으로 8일 김선빈, 김도영, 9일 정해영, 이의리의 사인회가 진행된다. 사인회는 선착순 100명이

며, 참여 방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경품도 풍성하게 준비됐다. KIA는 4월 7일 경기의 입장 관중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하는 도심형 SUV ‘셀토스’를 증정한다. 또 3연전 동안 입장 관중에게 신규 응원 막대인 ‘페이퍼 스틱스’ 1만5000개와 응원 깃발 700개를 나눠준다.

한편 개막전 티켓 예매는 경기 개시 7일 전인 31일 오전 11시부터 구단 공식 어플리케이션과 티켓링크 홈페이지(www.ticketlink.co.kr)를 통해 가능하다.

한규빈 기자

## ‘화력 폭발’ 광주FC, 2연승 도전

내일 수원FC와 홈서 5R 맞대결 A매치 휴식기 컨디션·체력 충전 5-0 대승 ‘막강 화력’ 이어갈 것



지난 경기 화끈한 공격력을 선보이며 대승을 거둔 광주FC가 2연승에 도전한다.

광주는 4월1일 오후 4시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수원FC와 하나원큐 K리그1 2023 5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지난 18일 인천유나이티드와의 4라운드 홈경기에서 막강한 화력을 뽐어

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 팀 인천과의 맞대결에서 아사니의 헤트트릭과 이희균, 엄지성의 득점까지 터지며 5-0 대승을 기록했다.

홈 팬들에게 첫 승리를 선사한 광주는 A매치 휴식기를 가지며 컨디션과 체력을 완벽히 충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역동적인 광주 축구를 펼친다는 각오다.

광주는 지난 인천전 무려 20개 슈팅을 퍼부으며 화끈한 공격을 선보였다. 유효 슈팅이 무려 13개에 달했고 아사니와 엄지성, 이희균, 산드로, 토마스 등 주축 공격수들이 맹활약을 펼쳤다.

정호연과 안영규, 티모 역시 적극적인 압박으로 주도권 축구를 이끌었고, 골키퍼 김경민은 페널티킥까지 막아내며 이정호 감독에 완벽한 경기력을 선물했다.

이번 상대 수원은 K리그1의 신흥 강자다. 지난 시즌 돌풍의 주역 이승우와 박주호, 라스, 무릴로 등 핵심 자원이 건재하고 윤빛가람과 이광혁, 이용, 김선민 등 베테랑까지 가세했다.

하지만 광주는 수원에 강했다. 24회 맞대결에서 14승 4무 6패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1시즌에도 2승 1패로 강한 면모를 자랑했다.

지난 경기 홈에서 대승을 거둔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강한 압박으로 상대 중원과 공격을 봉쇄하고, 빠른 역습과 적극적인 공격으로 충분히 승리를 거둘 전망이다. 한규빈 기자

## 송원대, 전국 최초 대학 주짓수팀 창단

전국 최초의 대학 주짓수팀이 송원대에 창단됐다.

30일 송원대에 따르면 전남 학교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주짓수 선수단 창단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송원대 최수태 총장과 광주시체육회 김영삼 사무처장, 광주교통연수원 김병수 원장, 대한주짓수회 채인목 사무처장, 광주주짓수회 박홍균 회장, ㈜대유건설 최희동 회장 등 내외빈을 비롯한 선수단 및 학생, 학부모 50여명이 참가해 창단을 축하했다.

송원대는 지방체육의 균형적인 발전과 대학스포츠 활성화, 엘리트 체육의 저변 확대, 각종 대회 우수성적 거양을 통한 대

학의 위상 강화를 위해 주짓수팀을 창단하게 됐다. 전국 대학 유일한 주짓수팀이다.

송원대 주짓수 선수단장은 최수태 총장이, 부단장은 홍성봉 스포츠지도학과 교수가 맡았다. 지휘봉은 박경민 감독이 잡았다. 박 감독은 2016년 서울오픈(ibjif) 어덜트 -76 노기 금메달, 2017년 도쿄인터네셔널 챔피언십(ibjif) 어덜트 -76퍼플 금메달, 2019년 포울 주짓수대회 브라운벨트 어덜트 -76체급 옐로우 금메달, 2022년 5월10일 블랙벨트스급(황명세관장승급) 등의 화려한 선수 경력을 바탕으로 선수들을 지도한다. 선수는 이상의 등 15명으로 꾸러졌다. 최동환 기자